



다중 구단이 20일(한국시간) 공식 SNS를 통해 권창훈(오른쪽)의 재활장면을 공개했다. 5월 경기 도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던 권창훈은 최근 재활을 통해 그라운드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출처 | 다중 SNS

“권창훈 1월 실전 컴백”

다중 구단 SNS 훈련장면 공개
1월 아시안컵 합류는 어려울 듯

권창훈(24·다중FCO)이 밝은 표정으로 그라운드 복귀를 꿈꾸고 있다.

다중 구단은 20일(한국시간) 공식 SNS를 통해 권창훈의 재활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 속 권창훈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채 프랑스 현지에서 재활에 한창인 모습이었다. 해맑은 표정 속에선 재활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느낄 수 있었다.

권창훈은 2017~2018시즌 리그앙 최종전이었던 5월 양제와 경기 도중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안았다. 결국 정밀진단 끝에 수술이 결정되면서 그라운드 복귀가 미뤄졌다. 더 큰 아픔은 2018러시아월드컵 출전 불발이었다. 대회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권창훈은 축구국가대표팀 공격 자원으로서 주가를 높이고 있었는데 급작스런 부상 악초를 만나면서 러시아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동시에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출전 역시 무산됐다.

5월 수술 이후 권창훈은 차근차근 몸을 끌어올렸다. 지난달에는 달리기를 시작했고, 이달부터는 공을 만지면서 감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중 구단은 이날 SNS를 통해 “권창훈의 실전 출격이 가까워졌다. 권창훈 역시 밝게 웃으며 훈련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알렸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권창훈의 컴백 시기를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슷한 기간 예정된 2019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합류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부상 예방·선수 관리, 전술실험 이전의 숙제



벤투 감독

비시즌 못 쓴 국내·아시아권 멤버들 유럽·중동리거와 컨디션도 서로 달라 주력선수 전열 이탈 전술실험에 암초 갑작스러운 부상 대비 임기응변 필요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이 20일(한국시간)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 스포츠 육상센터(QSAC)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 친선경기를 끝으로 다사다난한 2018시즌 스케줄을 마무리했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한 해였다. 대표팀은 1~2월 터키 안탈리아에서의 동계전지 훈련을 시작으로 3월 북아일랜드·폴란드 원정~5월 국내 및 오스트리아 강화훈련~6월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을 거쳤다. 벤투 감독이 부임한 9월부터 매달 소집 일정을 소화했다.

신태용(48) 전 감독과 벤투 감독까지, 두 명의 사령탑 체제에서 변함없이 언급되는 공통의 화두가 있다. 선수단 관리다. 매달 훈련캠프를 차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전열을 이탈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상과 컨디션 문제다. 벤투호가 출범한 이후 처음 원정 평가전을 소화한 11월 여정은 특히 전력누수가 심했다.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고유 컬러인 후방 빌드-업에 가장 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장현수(27·FC도쿄)가 병역특례를 위한 봉사활동 서류조작으로 태극마크 자격을 상실한데 이어 기성용(29·뉴캐슬 유나이티드), 정우영(29·알 사드), 이재성(26·홀슈타인 킵), 김문환(23·부산 아이파크) 등이 회복과 부상 등을 이유로 동료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

물론 대체자원 확보와 전략과 전술 실험, 플랜B·C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

한 도움이 됐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틀과 뼈대를 단단히 다져가야 할 벤투 감독의 입장에서는 부상 이탈이 끊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결코 달가울 수 없었다. 축구계는 호주 원정이 시작된 뒤 중도 이탈자가 나올 때마다 대체인원을 추가하지 않은 배경에 벤투 감독의 속앓이가 있다고 본다.

시기도 미묘하다. 12월 중순부터 대표팀 강화훈련이 예정돼 있고, 내년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2019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개최된다. 국내와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 멤버들은 비시즌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메이저 대회를 준비해야 하고, 유럽 및 중동리거들은 한창 몸이 올라온 시점이다. 저마다 다른 몸 상태를 고르게 유지한 뒤 결전에 나서야 하는 고충이 대표팀 스태프에게는 있다. 또한 대회 기간, 꾸준히 발생할 부상과 조처·임기응변도 필요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벤투호의 겨울,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12월부터 내년 1월 아시안컵 준비 축구협, 동계훈련 캠프 울산 낙점
1월 1일 UAE서 사우디와 평가전

호주 브리즈번에서 20일(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평가전을 마친 축구국가대표팀의 2018년 여정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A매치만 없을 뿐이다. 소집훈련은 한다. 우승을 목표로 정한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개최될 2019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비가 12월 중순 시작된다.

“우승에 도전 한다. 선수들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았으면 한다”는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의 의지를 확인한 대한축구협회는 동계훈련 인프라가 비교적 잘 조성된 울산을 캠프지로 낙점했다.

다만 K리그 협조를 구해야 한다. 12월 중순은 2019년을 대비한 휴식기가 시작될 시기다.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가

12월 9일 끝난다. 전날(12월 8일)에는 프로·아마추어 통합 챔피언을 가릴 FA컵 결승 2차전이 열린다.

협회 대표팀 소집 규정에는 아시안컵을 위한 조기소집이 없다. 월드컵이 열리는 연도에 한해 2주 이내 강화훈련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없는 규정을 풀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략 열흘 가량 국내와 위주로 손발을 맞출 대표팀은 이를 정도 짧은 휴가를 보낸 뒤 UAE 현지로 출국한다. 아부다비에 여장을 풀고 훈련에 나설 태극전사들은 새해 1월 1일 오전 1시(현지시간 12월 31일 오후 8시) 사우디아라비아 평가전을 갖는다. 새해 첫날 A매치는 처음이다. **남정현 기자**

“많이 배운 한 해…감독 첫 해 내 점수는 50점”

최현길의 스포츠 에세이

K리그2 4위 대전 고종수 감독의 소회

감독이 되니 불안한 선수 눈에 보여 걱정 안고 잘 될 수 없어…소통 중요 지적할 때도 자존심은 다치지 않게 선수 성장·징크스 깨기 감독하는 맛

고종수(40·대전 시티즌 감독)하면 생각나는 게 ‘고종수 존(zone)’이다. 야구 부근에서 원발로 감아 치는 프리킥은 그야말로 예술이었다. 리듬감 넘치는 드리블과 창의적인 패스도 일품이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대표팀을 맡은 히딩크가 “고종수처럼만 해라”던 칭찬도 떠오른다. 그는 ‘양평 테리블(무서운 아이)’이라는 별명이 가장 잘 어울린 선수였다. 국내에 축구 천재로 불린 선수는 제법 되지만, 고종수처럼 화끈했던 선수는 드물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만큼 성장하지는 못했다. 월드컵을 앞두고 당한 부상이나 결여된 동기부여, 긴 방황 등 사연 많은 선수 시절을 보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지 못한 채 ‘비운의 천재’는 2008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지난해 말 그가 대전 감독에 선임됐을 때 성공보다는 실패할까봐 걱정이 앞섰다. 은퇴 이후 수원 삼성에서 7년간 코치로 후배들을 도왔지만, 그 때까지 검증된 건 없었다.

다행히 그는 지도자로 연착륙했다. 데뷔 첫해 K리그2에서 4위를 하며 성과를 냈다. 준플레이오프를 통한 승격 가능성도

남겨뒀다. 시즌 초반 어려움이 컸지만, 그런 위기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점은 평가할만하다. 그는 “원래 목표가 5위였는데, 4위를 했으니 기분 좋다.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덤덤하게 말했다.

누구나 처음은 어려운 법이다. 안 해본 일이라서 서툴다. 고 감독도 그랬다.

“선수나 코치 때는 몰랐던 부분, 보지 못했던 부분이 감독이 되니까 보이더라. 코치 때는 선수들에게 좋은 얘기만 들려주면 됐지만, 감독은 다르다. 팀 전체를 보면서 선수 개개인을 살펴야 한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선수가 눈에 들어온다. 가정에 문제 있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좋은 플레이가 나올 리 없다.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선수 고종수는 많이 뒀었다. 가끔 건방도 뻔했다. 그런데 감독 고종수는 의젓했다. 겸손함도 보였다. 연신 “부족하다”고 했지만 1년 사이에 많이 성숙해진 듯 했다. 그는 “배움”을 강조했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번 시즌 최대 수확이라고 할만하다.

정신적인 성숙과 함께 성격도 관찮은 편이라서 올 해 점수는 후하게 줄만도 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50점”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부족했고, 많이 배운 한 해다. 그 점수면 충분하다”면서 내년에는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가 이번 시즌 지켜준 게 있다. 바로 선수의 자존심이다.

“선수 잘못을 지적할 때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다. 선수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나도 선수 때 자존심 건드리는 걸 싫어했다. 지금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SNS를 통해 보내준다. 선수의 잘못을 뻔히

아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다시 확인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감독의 보람을 말할 때는 목소리가 커졌다. 막 프로에 발을 디딘 선수와 어린 선수들이 조금씩 커 가는 모습, 또 그들이 내년에는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아울러 구단이 사무처 있던 각종 징크스를 하나 둘 깨뜨려나갈 때 느끼는 뿌듯함을 언급하며 “이게 감독하는 맛”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 선생님들의 말씀이나 행동이 이제 이해가 된다. 그 분들이 했던 선수단 관리 중에서 좋은 부분만 골라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감독에게 중요한 덕목이 뭐냐는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신뢰’라고 했다. 선수와 코치, 나아가 구단과 팬의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팀을 꾸려갈 수 없다는 걸 깨우친 한 해라고 했다.

그의 SNS 프로필에는 ‘호시우보(虎視牛歩)’가 적혀 있다. 호랑이처럼 예리한 시선을 갖되,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자기 성찰의 의미도 담겼다.

“축구인생에서 보면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선수들에게도 한번에 몇 계단씩 뛰어 오르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차근차근 올라가라고 말한다. 내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다.”

감독 고종수의 첫 걸음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축구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됐을 뿐이다. 만족도, 실망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깊은 공부를 해야 한다. 부디 선수로서 파우지 못한 천재의 꿈을 지도자로 완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문기자 choing2@donga.com·체육학 박사**



대전 시티즌 고종수 감독은 사령탑으로 치른 첫 시즌 팀을 K리그2 4위에 올려놓으며 지도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50점을 주며 내년 시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